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이자,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최후 걸작으로 꼽히는 사그리다 파밀리에 성당(성 가족성당). 1882년 착공돼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파밀리에 성당·카사밀라 ... 가우디와 사랑에 빠지다

‘꽃보다 할배’ 여행지 각광 스페인 바르셀로나

정열과 열정의 나라 스페인. 투우와 플라멩고가 열릴 때오른다. 하지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축구와 가우디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만큼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물과 FC바르셀로나가 대표적 관광상품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 한 케이블TV의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여행지로 등장해 요즘 한국 관광객들에게 최고 ‘핫’한 곳이다.

바르셀로나 관광은 사그리다 파밀리아(대가족) 성당을 비롯한 구엘공원 등 가우디의 독특하고 다양한 건축물을 둘러보는 투어와 ‘람블라스’ 거리에서 바르셀로나의 대표적 항구인 ‘포트벨’, 몬주익 언덕 등으로 이어지는 시내 투어로 구분할 수 있다.

◇가우디 건축물 투어=스페인의 대표적 관광도시 바르셀로나에서 단연 안토니오 가우디가 남긴 독특한 건축물은 최고의 관광상품이다. 재미있는 모양의 벤치와 보도블럭, 가로등에도 가우디의 손길이 묻어있다.

벤치·보도블럭·가로등에도 가우디 손길

지중해와 맞닿은 항구 ‘포트벨’ 이국적

람블라스 거리~몬주익 언덕 투어도 볼만

모티브로 설계된 곳이다. 비가 오면 건물에서 비를 모아 기둥을 타고 저수장으로 물이 모이도록 해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일부는 정문 쪽에 있는 분수대로 흐르도록 설계돼 있는 아이디어들이 눈에 띈다. 계단 양편으로는 분수와 도마뱀 모양의 조각이 만들어져 있고, 돌로 쌓은 기둥과 천장 등이 실 새 없이 눈을 즐겁게 한다.

타일로 만든 모자이크는 가우디만의 독특한 표현 양식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특색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공원 내에는 가우디가 디자인한 의자 등이 전시된 가우디 박물관도 있다. 이른 아침 산책삼아 공원을 찾았다면 자연 속에 숨어있는 가우디의 작품들이 더욱 돋보인다. 현재 가우디의 작품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모두 지정돼 있다.

◇중세 거리에서 지중해까지=바르셀로나 시내 투어를 넓은 카탈루냐 광장에서 시작된다. 이른바 ‘만남의 광장’이다. 거리 약 사들의 공연과 현지인 및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가장 활기찬 곳이기도 하다.

넓은 카탈루냐 광장을 시작으로 펼쳐지는 구 시가지에는 중세 시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관광지는 람블라스 거리다. 중세 건축물에 다양한 상점, 카페들이 모여 있어 볼거리가 많다.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늘 활기찬 곳이다. 거리 약사들의 공연과 거리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구경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람블라스 거리 한쪽에 자리한 보케리아 시장은 여행에 지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한다. 다양한 식재



자연과 조화로우며 이루는 가우디의 건축물이 돋보이는 구엘공원. 바르셀로나 시내가 한 눈에 들어온다.



바르셀로나 구 시가지에 자리한 보케리아 전통시장.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곳이다.

가우디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현재도 공사가 진행중인 사그리다 파밀리에 성당(성 가족성당)이다. 성당이지만, 가우디의 최후 걸작으로 꼽히는 건축물이다.

1882년부터 착공에 들어간 이래 13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건축되고 있는 이 성당은 가우디 서거 100주기인 2026년으로 완공이 예정돼 있다.

성당 앞에 서면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성당의 웅장함과 외벽에 정화하고 현실감 있게 묘사된 조각들의 섬세함에 웅지 마음까지 경건해진다. 성당 입구에서 고개를 들어 성당을 보게되면 170m 높이에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있는 옥수수 모양의 첨탑들이 금방이라도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공포감마저 들게 된다.

성당 내부는 조각으로 된 숲속에 온 느낌이다. 자연을 모티브로 한 기하학적인 무늬의 기둥과 웅장한 규모에 놀랄 뿐이다. 스테인 글라스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자연 채광돼 성당 내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축를 설계에 감탄이 절로 든다.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은 해가 질 무렵 붉은 노을을 받았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성당에서 걸어서 또 다른 가우디 건축물인 카사밀라와 카사 바트까지 갈 수 있다. 색색의 타일에 곡선 모양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테라스와 독특한 내부장식, 손잡이, 천장 하나 하나에 가우디의 상상력이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엘 공원은 가우디의 자연친화적인 성향이 그대로 녹아있다. 가우디의 후원자였던 구엘 백작이 꿈꾸던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가 가득한 전통시장인 이 곳에서 샐러드와 주스, 아이스크림 등 간단한 식사와 디저트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람블라스 거리’를 따라 항구쪽으로 가다보면 콜롬버스 탑을 거쳐 아름다운 바르셀로나 항구 ‘포트벨’(Port Vell)까지 다다른다.

수많은 요트가 정박해 있는 마리아 누로 타트인 지중해를 만날 수 있다. 스페인의 주요 항구인 이 곳 포트벨은 상업 중심지로 독특한 특성, 문화사업,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다. 해변에는 비치 발리볼 코트장도 마련돼 현지인들의 주요한 여가활동 장소로도 꼽히고 있다.

마리아 인근에 자리한 대형 쇼핑몰에는 영화관, 식당, 커피숍 등이 밀집해 푸른 지중해와 하늘을 보며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이 곳 식당에서는 돼지 뒷다리의 넓적다리 부분을 통째로 소금에 절여 건조한 뒤 신선한 바람에 말린 스페인의 전통햄인 하몽과 전통음식인 빠에야 등을 맛볼 수 있다.

포트벨을 떠나 몬주익 언덕으로 오르면 바르셀로나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바르셀로나 최고의 뷰포인트로 손꼽히는 미라마르 전망대에 서면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구 시가지 한눈에 들어온다.

몬주익 언덕 위에는 몬주의 올림픽 경기장이 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린 메인스타디움이다.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1위를 차지해 더욱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경기장 앞에는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황영조 1위 기념비가 있다.

/글·사진=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MA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0년은 가는데!!

시공과 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탑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 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